

고유가에 친환경차 질주... 완성차업계, 실적개선 '청신호'

기아 글로벌 중심 판매 성장세 지속
현대차 캐스퍼 등 전기차 판매 급증
르노코리아 하이브리드 모델 각광

중동상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친환경차가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국내 4만4713대, 해외 23만2781대, 특수차량 221대 등 총 27만7715대를 판매했다. 국내는 0.6% 감소했지만 해외는 3.4% 증가했다. 전체 실적은 스포티지가 이끌었으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티지는 5월 글로벌 시장에서 5만2293대가 팔리며 기아 최다 판매 모델에 올랐다. 이어 셀토스가 2만9208대, K4가 2만1488대로 뒤를 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쏘렌토가 가장 많이 팔렸다. 쏘렌토는 지난달 7836대가 판매되며 기아 내수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특히 PV5가 2000대 이상 판매되며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라인업 확대에도 힘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기아 쏘렌토.



/기아 르노코리아 필랑트.

/르노코리아

을 보냈다.

기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SUV 하이브리드, 유럽에서는 대중화 전기차 라인업을 앞세운 지역별 친환경차 판매 전략을 통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판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맞춤형 판매 전략으로 판매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판매량 감소를 기록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압도적인 인기에 힘입어 견고한 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10대중 8대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르노코리아의 친환경차 경쟁력을 입

증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국내 2893대, 수출 3020대 등 총 5913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랑콜레오스가 1248대를 기록했으며 이어 필랑트가 1201대, 쿠페형 SUV 아르크나이가 444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판매된 모델 중 하이브리드 모델은 2295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79.3%에 육박했다. 필랑트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인 만큼 판매량 1201대 전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 그랑콜레오스도 1248대 중 1059대가 하이브리드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협력사 부품 수급 차질로 판

매량이 급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4만5364대, 해외 28만 109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총 32만547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23.1% 감소, 해외 판매는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전년 동기 대비 캐스퍼는 67.1%(1152대), 아이오닉 9는 70.9%(1482대), 아이오닉 5는 105.2%(2575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지난달 국

내 3318대, 수출 4870대로 총 8188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국내는 6.8%, 수출은 12.1% 감소했다. 친환경차인 토레스 EVX는 99대, 무쏘EV는 755대 판매되며 각각 16.5%, -6.8%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지난달 국내는 808대, 해외는 4만6273대로 총 4만7081대를 판매했다. 한국GM의 경우 친환경차 라인업이 없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기술린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철강업계, 임단협 본격화... 하청 교섭 등 쟁점

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변수 작용
현대제철, 성과급 등 노사 시각차

철강업계 양대 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하면서 임단협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황 부진과 보호무역 강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과급, 협력사 직원 직고용, 하청 노조 교섭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 등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이르면 이달 초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노조는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한 데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처분으로 쟁의권 확보는 놓쳤지만 노조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다. 지난달 말에는 쟁의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진행한 뒤 27일까지 4차 교섭을 마쳤다. 노조는 지난해 대비 성과급 150% 이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지난 2021년 대비 2025년 전사 기술직 인원이 398명 감소했음에도 고로 매출량은 497만t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 감소 속에서도 생산성이 개선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조는 4차 교섭까지 사측이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차기 교섭부터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다음 교섭은 오는 2일 열린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된 점도 변수다. 인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현대제철 하

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조들이 교섭단위를 따로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현재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현대제철 측은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역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철강업계는 수요 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투자 부담 속에서 고부가가치 소재와 신수요 확보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본업 수익성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707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지만,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3450억원으로 23.8%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5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72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IG D&A, USV 지능형 지휘통제 실증... 미래 전장 이끈다

다목적 무인수상함 '해검S' 가동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무인플랫폼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국방 기술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글로벌 AI 기업 필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협업한 지능형 지휘통제 솔루션을 통해 해외 고객 요구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LIG D&A는 지난달 27일 한국해양대에서 '무인수상정(USV) 지능형 지휘통제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AI 기반 다목적 무인체계 기술과 다기종 무인체계 통합

운용 역량이 공개됐다. 특히 LIG D&A는 국내 최초로 서로 다른 종류의 무인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하는 '다기종 무인체계 근접 연결'을 수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제 해상 자산과 정밀 시뮬레이터를 위성통신으로 실시간 연동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이다. 한국해양대 인근 해역에는 LIG D&A의 대표 무인수상정 해검3, 해검5와 3D 프린팅 기반 소형 다목적 무인수상정 해검S 2대 등 총 4척의 실제체가 투입됐다. 해검S의 해상 가동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LIG D&A는 향후 무인체계 시장을 선

도하기 위한 기술 전략으로 '오픈 플랫폼, 클로즈드 코어(Open Platform, Closed Core)'를 제시했다.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를 채택해 다양한 체계와의 연동성을 확보하고 개발 비용을 낮추는 한편, 독자적인 국방 데이터 학습과 폐쇄망 운용을 통해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영 LIG D&A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연은 비전을 현실로 증명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연동 플랫폼을 지속 확장하고 조기 제품화를 추진해 글로벌 패키지 솔루션 수출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대한전선,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초고압 전략망 구축... 500억 규모

대한전선이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 계통 연계 프로젝트를 확보하며 초고압 전력망 분야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전라남도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에 154kV급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수주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해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남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계통 연계 프로젝트다. 해남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전선은 이번 사업을 풀 턴키 방식으로 수행한다. 전력망 설계부터 케이블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전 과정을 일괄 맡는다. 풀 턴키 사업은 케이블 제조 기술뿐 아니라 현장 시공, 품질 관리, 계통 연계 경험 등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역

량이 필요하다.

대한전선은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에서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신안 비금 태양광 발전소와 도고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좌도 변전소로 연결하는 154kV 초고압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제조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망 시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의 전력망 투자 수요에 맞춰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이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사업 경험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전력망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엘지넷플렉스' 출시

LG전자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TV와 콘텐츠 결합한 구독 상품을 선보인다. 가전 구독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LG전자가 프리미엄 TV와 콘텐츠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고객 접점을 넓히려는 방침이다.

1일 LG전자에 따르면 엘지넷플렉스는 넷플릭스의 4K UHD 고화질 콘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OLED TV를 비롯해 구독 가능한 LG TV 전 모델로 이용할 수 있다. 월 구독료는 고객이 선택하는 TV 모델, 구독 기간(3~6년), OTT 서비스 요금제(스탠드·프리미엄)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달 1일부터 전국 459개 LG전자 베스트샵 매장(백화점 포함)에서 가입 가능하며, 향후 LG전자 공식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가전양판점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



LG전자가 넷플릭스와 결합 구독 상품 '엘지넷플렉스'를 1일 출시했다. /LG전자

대할 예정이다.

6월 한 달 간은 LG TV 단독 구독 시보다 저렴한 수준의 론칭 프로모션가로 가입할 수도 있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대화면 프리미엄 TV인 83·77인치 OLED TV(모델명 OLED83C6SNA, OLED77C6SN A)와 86·75인치 MRGB TV(86MRGB86B KA, 75MRGB96BKA) 4개 모델이며, 엘지넷플렉스 가입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추가 할인된 월 구독료가 적용된다. /서현정 기자